

사회



삼엄한 감시 8일 졸업식이 열린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고교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과도한 뒤풀이 행사를 막기 위해 순찰차를 동원해 교내를 순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르포 - 경찰 감시 속 치러진 졸업식 풍경

교내까지 순찰차... “괜히 주눅드네”

‘탈선 뒤풀이’ 막기 집회·시위 현장 방불

“경찰이 학교 곳곳에 배치돼 졸업식 분위기가 한결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새출발을 다짐하는 졸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과도한 단속은 자제해 주세요.” 8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모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 학교 앞에서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연출됐다. 졸업생들과 학부모, 재학생들은 물론, 경찰관들이 학교 안팎에 배치돼 마치 집회나 시위 현장을 방불케 했던 것. 경찰들은 학교에서 150m 가량 떨어진 입구에서부터 순찰차를 세워 둔 채 인근 골목길 등을 누비며 학생들을 탈선 행위를 ‘감시’했다. 이날 학교 주변에 투입된 경찰력은

모두 110여명. 광주남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와 방범순찰대, 효덕파출소 등에서 나온 경찰들은 ‘알몸 뒤풀이’나 폭력 행위 등 졸업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주변은 물론, 교내까지 들어와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 때문인지 이날 졸업식이 치러진 고교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었던 밀가루나 달걀 세레 등 학생들의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 행사가 자취를 감췄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교내에 배치된 경찰들 사이를 지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뿐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찰의 학교 배치에 대해 낯설다는 표정을 지

었다. 교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던 졸업생들은 저마다 학교 곳곳에 서 있는 경찰들을 가리키며 “경찰이다!”라며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졸업생 이모(19)군은 “1년에 한 번 뿐인 졸업식에 경찰까지 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설레고 기뻐 할 졸업식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1시간 동안의 졸업식 행사가 마무리되자 경찰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다. 예년까지 대부분의 ‘알몸 불상사’가 행사 직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학생들의 동선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학교 인근 골목길까지 샅샅이 순찰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경찰의 졸업식 순찰 활동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교내까지 순찰차를 타고 들어와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졸업식을 치른 고교의 한 교사는 “올바른 졸업식 문화를 선도하려는 경찰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즐거운 졸업식날 학생들이 괜히 주눅이 들진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학부모 김진수(여·45)씨도 “졸업식에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혹시나 이전에 문제가 됐던 ‘알몸 뒤풀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안심은 된다”면서도 “하지만 지나친 경찰의 순찰은 되레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대부분 학교의 졸업식 행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까지 경찰력을 배치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뒤풀이를 하는 학생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미적미적하다 결국... 17억대 물품 특혜

2억대 금은방 절도범 잡았다

‘17억대 물품 특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고발

여수경찰, 50대 등 전문털이 3명 검거

광주시교육청은 8일 편법으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A사무관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광주 모 전문계고 행정실장 근무시절인 지난해 도서관과 급식실 등 17억원대의 각종 학교 물품과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분할 수의계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A사무관을 징계(해임)했

으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또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해당 학교 B교장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심사를 청구기도 했다. 한편 A사무관은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교육청 인사에서 예산 관련 핵심부서로 전격 발탁돼 측근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경찰은 8일 도심 금은방에서 수억원의 귀금속을 털 전문털이범 황모(5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께 여수시 충무동 이모(54)씨의 K금은방에 침입해 금 목걸이와 금팔찌, 금반지 등 시가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한 뒤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금 은방에서 노루밭뿔뿔(속칭 ‘뿔뿔’)을 수거한 뒤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4년 전 동일수범으로 금은방을 털 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50일간의 잠복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한편, 여수경찰은 최근 금은방 전 문털이범을 검거한데 이어 PC게임방·편의점 강도사건 등 4건의 강력사건을 잇따라 해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멧값 폭행 최철원씨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멧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를 수거한 뒤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4년 전 동일수범으로 금은방을 털 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50일간의 잠복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한편, 여수경찰은 최근 금은방 전 문털이범을 검거한데 이어 PC게임방·편의점 강도사건 등 4건의 강력사건을 잇따라 해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백응철 부장판사)는 8일 총장 선거 과정에서 항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 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 교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전액자 등의 선물을 돌려주는 등 10만원 상당의 항소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복채가 아까워”

역술원서 돈 훔치고 무속인 폭행 주부 2명 검거

점괘가 맞지 않거나 곳의 효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속인을 폭행하거나 돈을 훔친 주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8일 자신이 자주 점을 보던 역술원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주부 김모(여·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역술원에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경기불황으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역술원에 가서 10여차례 점을 봤지만, 점괘가 맞지 않자 갖가에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5시에는 주부 정모(여·44)씨가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골목길에서 무속인 박모(여·41)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박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박씨를 찾아가 150만원을 내고 곳을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남편이 경기 불황으로 돈을 벌어도 지 못하자 생활비를 고민하던 중 박씨의 권유로 곳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알몸 보이는 온천탕

건물 유리창으로 일부 비쳐... 인터넷서 ‘후끈’

업체 “완전 차단하겠다”

보성의 한 온천탕 건물 유리창으로 이용객의 알몸이 비친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알몸 다 보이는 목욕탕, 일부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누리꾼 ‘실감해여’는 “이번 설날에 가족, 친척들과 보성에 다녀왔는데 (온천탕)건물을 쳐다보니 안이 다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를 포함해 여자까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여 치욕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글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첨부해 온천탕 이용객의 알몸이 식별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사진에서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온천탕 이용객 3~4명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대부분

크게 놀라는 분위기였다. 또 일부 누리꾼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왜 온천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주인에게 물어보고 싶다”면서 “그 동안 손님들의 혐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문체의 온천탕은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모 콘도 측이 운영중인 해수욕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의 유리창은 특수 컬러 유리창이어서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햇살이 강해지는 정오께에는 알몸이 비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을 운영하는 콘도 관계자는 “일부 이용객들이 ‘창가에 올라가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무시한 채 탕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완전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선성기자 sun@

허영철 전 해남 부군수 검찰, 징역 5년 구형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효경)는 8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허영철(57) 전 해남군 부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전 부군수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벌금 4억6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8)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가운데 대출금 2억3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출금 가운데 1000여만원을 실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전 부군수는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4억명품녀신상털이’ 잡고보니 고교생 ○...지난해 케이 블TV의 ‘4억 명품녀’ 방송 논란과 관련,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를 샅샅이 훑어 인터넷에 공개(일명 ‘신상털이’)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 고교생 2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 ○...대구경찰청은 8일 학교와 기업 등 100여개의 인터넷 서버 시스템을 해킹해 76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구 모 고교 2년 K(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해 9월 케이블TV 채널인 엠넷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모씨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품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대’라며 포사하자 인터넷 소프몰과 항공사 등을 해킹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 /연필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총합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권·향·행·행·국·원·법·화·학·경·재·공·화.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취업 소망직 (전문) 시험정보와 동일, 체력검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4시간).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매월 1일